

수원수목원 운영 개선방안

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요 약

■ 수원수목원 개원 3년, 누적 방문객 168만명 넘어

- 2025 수원서베이 결과, 수원시민 절반 이상(52.9%)이 방문했다고 응답
- 일월수목원은 입장객수가 영흥수목원에 비해 1.7배 많고, 영흥수목원은 유료회원수가 일월수목원 대비 3.7배 많아 수목원별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

■ 수원수목원 만족도는 도시공원보다 높은 수준

- 전반 만족도 78.3점(100점 환산)으로 도시공원(69.7점) 대비 8.6점 높음
- 방문자센터 만족도(80.9점)가 높고, 이용프로그램 만족도(75.2점)는 상대적으로 낮음. 거주지·소득 등에 따른 이용률·만족도 격차 존재

정책제언

■ [역할 확대] 도심 기후 적응의 리빙랩 거점화

- 기후변화 대응 테스트베드 정원 조성 및 시민 보급형 기후적응 정원 가이드라인 배포

■ [거버넌스 전환] 시민을 관람객에서 공동 창작자로 전환

- 유료회원·활동가 식재 참여(오픈 가드닝 데이), 시민 가드너·도슨트 인증제 및 생태 모니터링단 운영

■ [공간 확장] 도시녹지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구축

- 손바닥정원 등 도심 소정원 대상 자생식물 소재 지원 및 찾아가는 정원 관리 컨설팅 추진

■ [서비스 체감] 일상적 정원복지·돌봄 플랫폼으로 정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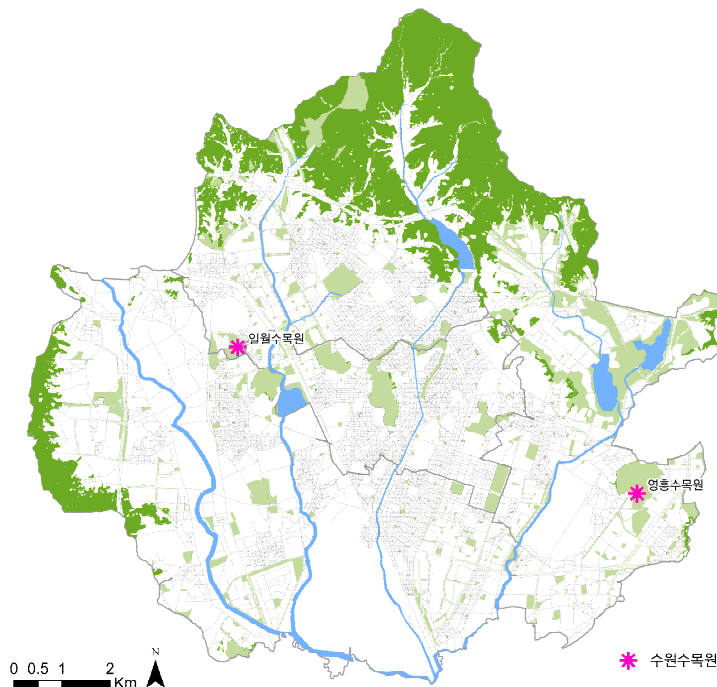
- 정원상담실 상시 운영, 복지 기관 연계 정원치유 처방 및 공동체 텃밭정원 분양

1. 수원수목원 운영 현황

□ 수원수목원 개원 3년, 이용과 가치 확산 필요

- 수원시는 2023년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을 개장하며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 녹색 인프라 구축
 - 두 수목원은 각각 습지와 산림이라는 차별화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식물 보전, 환경교육, 여가 및 치유 기능을 수행하며 수원의 대표 녹색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
- 개원 3년차는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에 적절한 시점. 시설의 양적 확충을 넘어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, 재방문 의향, 개선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향후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됨. 이에 본 브리프는 「2025년 수원서베이」 결과를 토대로 수원수목원의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<수원수목원 조성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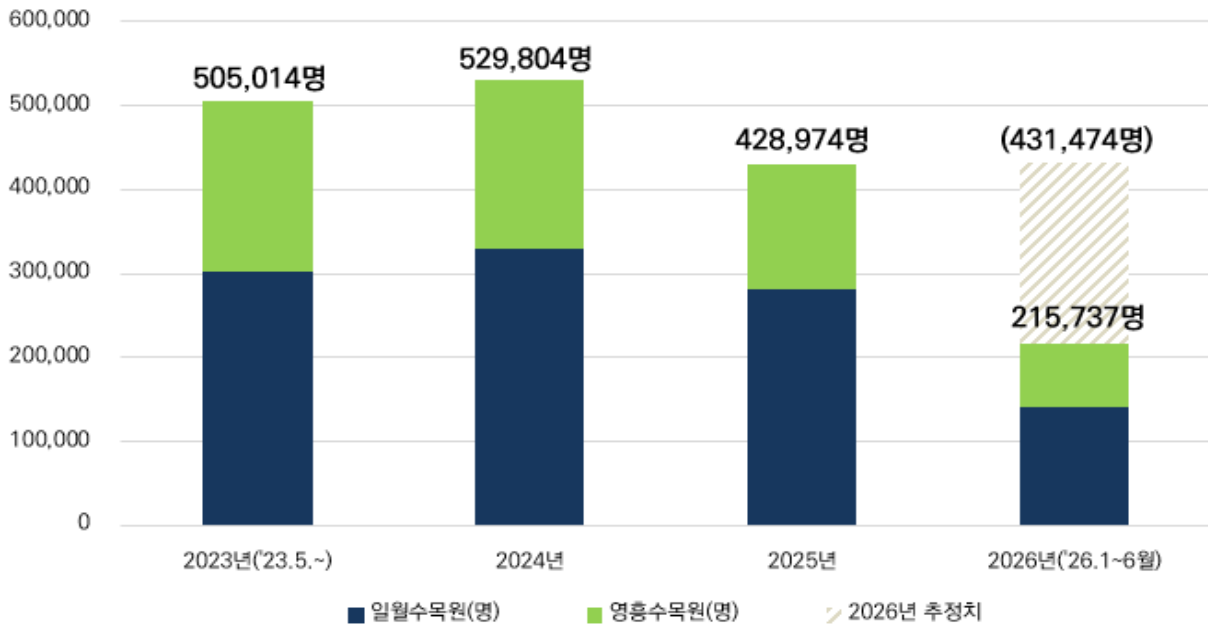


구분	개원시기
일월수목원	2023.5.19.
영흥수목원	2023.5.20.

□ 개원 효과 이후 2026년 다시 회복세

- 수원수목원은 23년 5월 개원 이래 2023년 50.5만 명, 2024년 53.0만 명, 2025년 42.9만 명, 2026년 상반기 21.6만 명 방문. 올해 추세로는 2025년 입장객을 웃돌 것으로 예상
- 누적 입장객은 일월수목원이 105.5만명, 영흥수목원이 62.5만명으로 일월수목원이 약 1.7배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
 -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성균관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드라마 등 미디어 노출로 국내외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영흥수목원은 영통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수원수목원 입장객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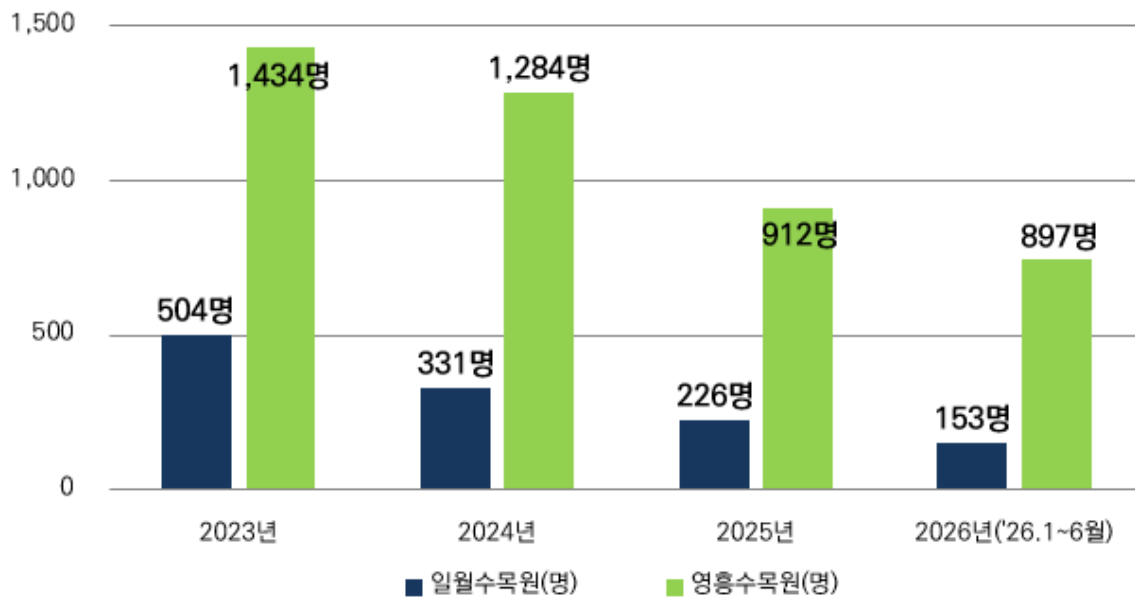


-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도립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에는 평균 약 343,575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입장객 현황 분석 결과 2023년 315,147명, 2024년 352,932명, 2025년 362,645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(경기도데이터 통합플랫폼)

□ 유료회원 가입은 매년 감소하다 2026년 상반기 회복

- 수원수목원의 유료회원은 2023년 1,938명, 2024년 1,615명, 2025년 1,138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2026년 상반기 897명으로 이미 2025년 연간치의 약 79% 수준에 도달하여 반기 기준 회복 조짐
- 유료회원은 개인, 가족, 평생회원으로 구분되며 대다수가 가족회원으로 등록. 재방문 유인효과 존재
- 누적 유료 회원가입 인원은 영흥수목원이 4,342명, 일월수목원이 1,214명으로 영흥수목원이 약 3.6배 많음.
이는 입장객 규모는 일월수목원이 더 크지만 회원가입은 영흥수목원이 더 많아 대조적 패턴을 보임
- 영흥수목원은 지역주민의 재방문이 많아 유료회원 비중이 높은 반면 일월수목원은 상대적으로 1회성, 광역 방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

<수원수목원 유료회원 가입현황>



자료: 수목원 회원가입 현황(2026.6.30. 기준). 개인·가족·평생회원 합산 인원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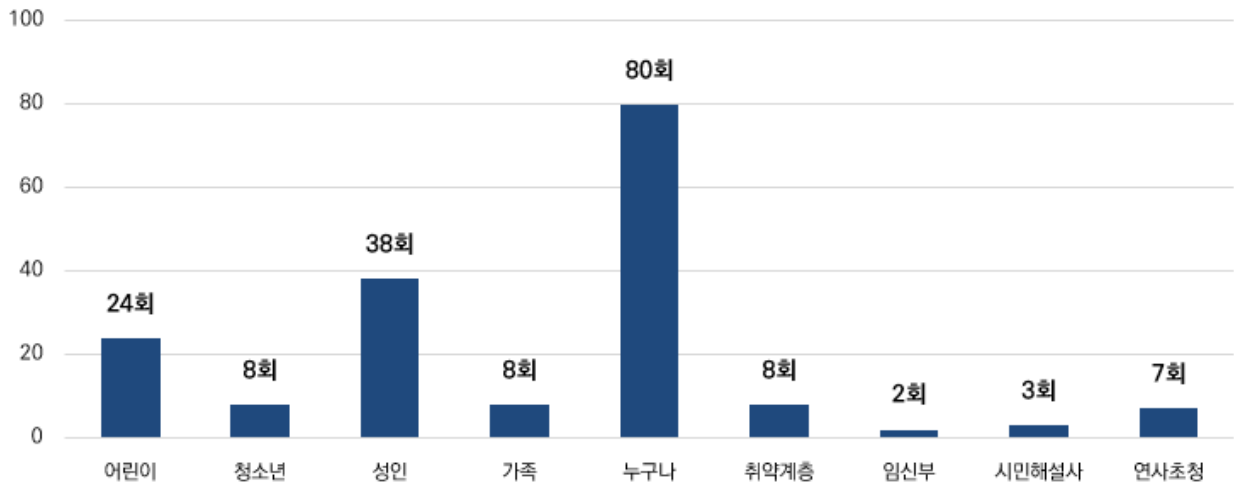
□ 수원수목원은 개원 3년차 수목원의 본래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시점

- 국제식물원보전연맹(BGCI) 및 국내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면 수목원의 핵심 기능은 연구, 전시, 교육에 있으며 수원수목원 역시 연구, 전시, 교육을 대표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음
 - 연구분야는 주요 식물종인 해오라비난초, 칠보치마 등 멸종위기종의 수집 및 증식 등 종보전 활동
 - 전시분야는 계절 꽃전시, 전시온실, 테마정원 외 모네특별전, 물의 정원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 운영
 - 교육분야는 일월수목원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육, 영흥수목원은 정원문화 보급을 목표로 식물상담, 정원상담, 시민교육, 어린이 프로그램, 전문가 특강 등이 다양하게 운영
- 수원수목원의 경우 전시와 교육 분야에서는 빠르게 자리잡고 있으나 연구기능의 경우 기초 식물관리 및 수집은 활발하지만 연구기관으로서 성과는 아직 초기 단계
 - 대학 및 국립수목원과의 공동연구, 시민과학, 도시생물다양성 등 연구분야 확대 필요. 이를 위해 연구인프라, 성과 및 대외협력 필요
- 도심형 수목원은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연구·전시·교육 기능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도시의 생태거점으로 자리매김 가능

□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
- 수목원에서는 수목원 해설, 식물상담(일월)·정원상담(영흥), 업사이클 가드닝 등 상시 교육프로그램(9개 분야, 178회)을 운영하고 있으며, 문화프로그램은 5~10월 야간 개장과 가을꽃축제 등을 별도로 추진
 - 체험 프로그램 대상은 '누구나'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80회(44.9%)로 가장 비중이 높고, 성인(38회), 어린이(24회) 순

<수원수목원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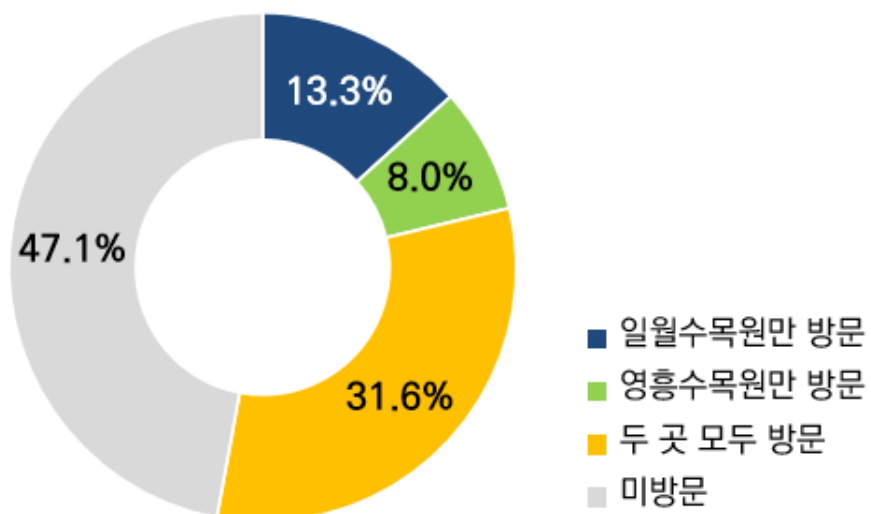


2. 수원수목원 이용 현황

□ 수원시민 절반 이상이 수원수목원 방문 경험

- 2025 수원서베이 전체 응답자 3,023명 중 1,599명인 52.9%가 일월·영흥수목원 중 한 곳 이상 방문한 것으로 응답
- 일월수목원 방문객이 1,358명(44.9%), 영흥수목원 방문객이 1,198명(39.6%)으로 나타났으며 두 곳 모두 방문한 중복 이용자는 957명(31.6%)으로 조사됨
 - 영흥수목원 이용자의 79.9%가 일월수목원도 함께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시설 간 연계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

<수원수목원 이용 현황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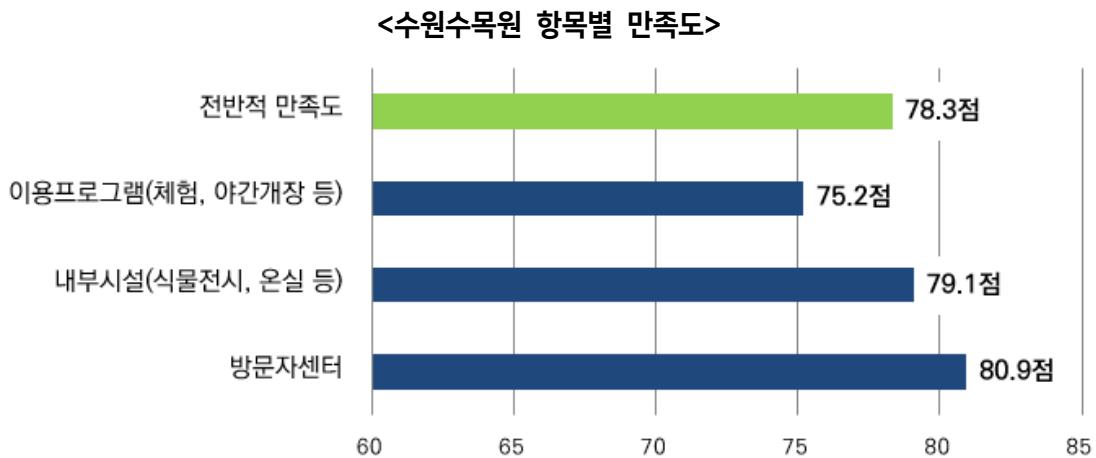
※ 전체 응답자 3,023명 기준 수목원 이용 구성비. 미방문 47.1%, 중복 방문 31.6%

□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률 격차 뚜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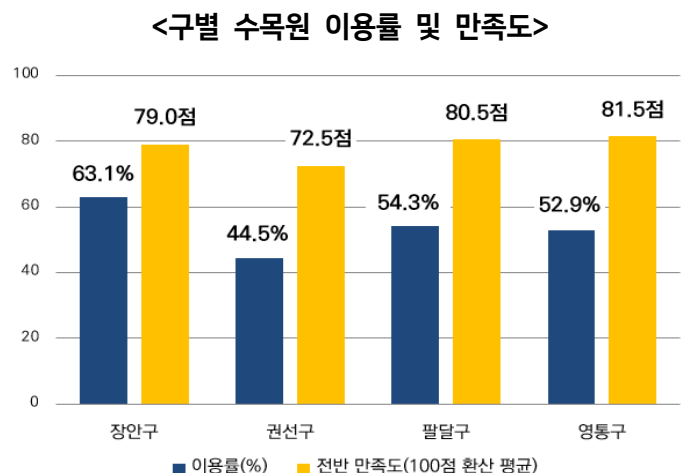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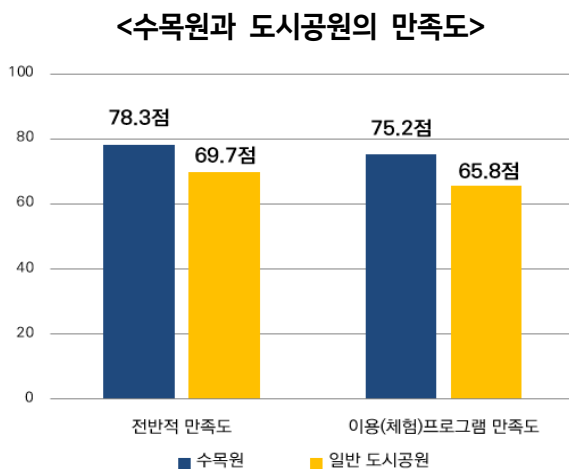
- 일월수목원이 위치한 장안구 거주자의 수원수목원 이용률은 63.1%로 4개 구 중 가장 높은 반면 권선구 거주자의 수목원 이용률은 44.5%로 최저
- 장안구 거주자의 일월수목원 방문 비율은 60.9%인 반면 영흥수목원 방문비율은 34.5%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, 영통구 거주자의 경우 영흥수목원 방문 비율은 45.6%, 일월수목원 방문 비율은 39.7%로 두 수목원 모두 방문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

□ 수원수목원 이용 만족도 도시공원보다 높아

- 수원수목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78.3점으로 높게 나타남
 - 방문자센터 만족도는 평균 80.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용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75.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



- 도시공원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도 뿐만 아니라 이용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
 - 수목원 전반 만족도(78.3점)는 수원시 관내 도시공원에 대한 만족도(69.7점) 대비 8.6점 높음
 - 도시공원 이용프로그램 만족도(65.8점)와 비교해도 수목원 이용프로그램(75.2점)이 높은 수준
- 영통구 거주자 만족도 평균 81.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선구 72.5점으로 최저
 - 만족도 격차 방향이 이용률 격차와 유사하며 접근성이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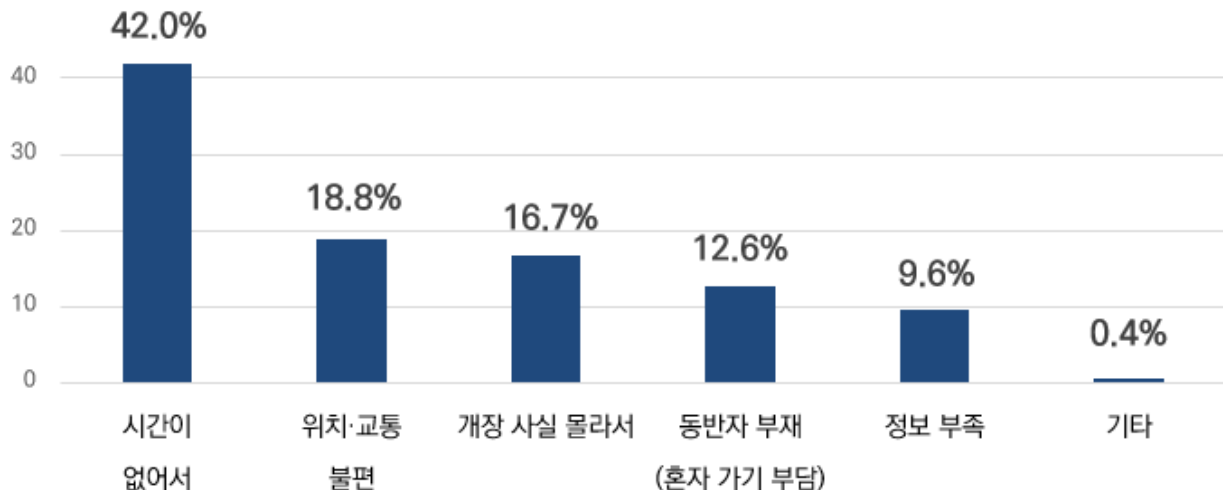
□ 소득·가구유형·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라 이용 격차 존재

-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이용률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. 소득수준에 따라 수목원 이용률의 차이 존재
 -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63.1% 이용, 200만 원 미만 41.0%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약 22.1%p 차이 발생
- 가구 유형 및 사회적 고립에 따른 격차 발생
 - 부부+자녀가구에서 58.1%의 이용률을 보이는 반면 1인가구 45.2%로 이용률 최저
 - 특히,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군의 이용률은 29.1%로 비고립군(54.6%) 대비 25.5%p 낮게 조사됨
-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라 이용률 차이 발생
 - 40대 이용률이 57.3%로 가장 높고 19~29세 청년층 46.7%로 가장 낮음
 - 기혼(59.7%)이 미혼(42.8%)보다 이용률이 16.9% 높아 가족 단위 이용 특성 확인

□ 미방문 사유로는 '시간 부족'이 최다, 계층별 사유 상이

- 시간이 없어서 598명(42.0%)으로 최다, 위치·교통 불편 268명(18.8%), 개장 사실 인지 부족 237명(16.7%), 동반자 부재 179명(12.6%), 정보 부족 136명(9.6%) 순
 - 1인 가구는 '혼자 가기 부담스러워서'(17.2%) 응답 비중이 부부+자녀가구(8.6%)의 약 2배로 분석됨
 - 사회적 고립군은 '위치·교통 불편'(30.1%), '수목원 개장 사실 인지 부족'(25.5%) 비중이 비고립군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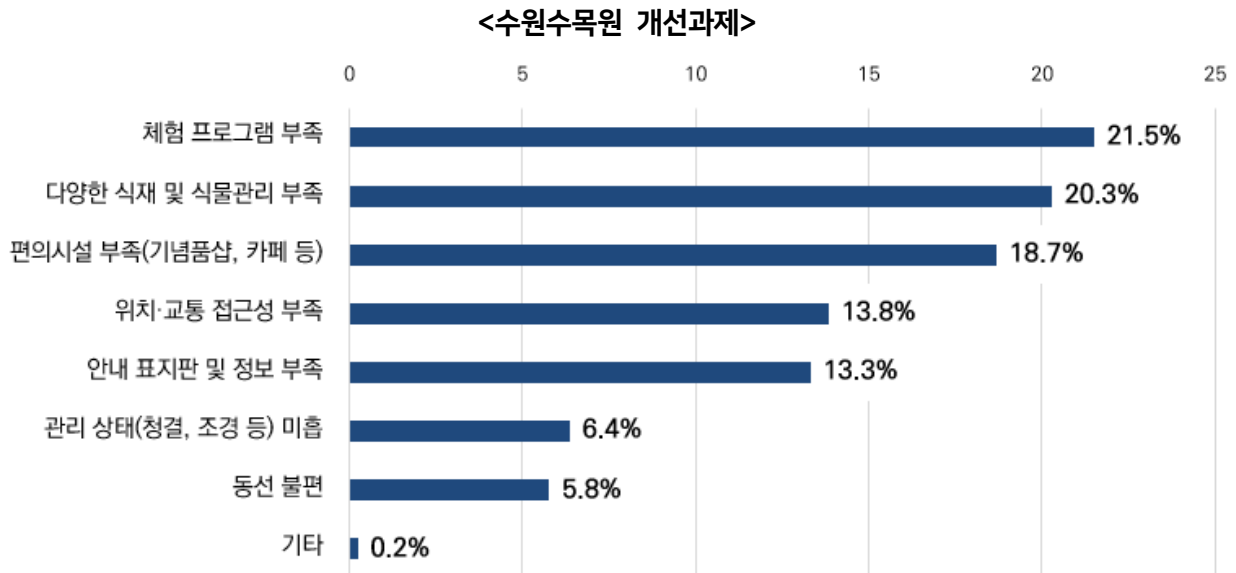
<수원수목원 미방문 사유>



□ 시민이 생각하는 개선과제로는 콘텐츠, 편의시설 보완 요구가 최우선

- 개선 우선순위 1, 2순위를 합산한 결과, 체험 프로그램 부족 688명(21.5%), 다양한 식재 및 식물관리 부족 649명(20.3%), 편의시설 부족 598명(18.7%) 순
 - 위치·교통 접근성 부족(443명), 안내 표지판 및 정보 부족(426명) 등의 개선사항이 도출됨

- 장안구에서는 체험프로그램, 편의시설 등 콘텐츠 고도화 요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권선구, 영통구, 팔달구에서는 안내 표지판 및 접근성·정보 관련 요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

3. 도심형 수목원의 선진 운영사례

□ 해외 주요 도심형 수목원들은 식물 전시 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실증 거점, 시민 참여형 생태 거버넌스, 도시 전체 녹지 네트워크의 허브로 진화하며 정책적 가치 확산 중

□ 기후위기 대응 실증 및 도심 생태 가이드라인 확산 거점인 ‘호주 멜버른 로열 보타닉 가든’

-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며 단순 보존을 넘어 도시 전체의 기후 적응 전략을 이끄는 실증 수목원
- '기후변화 적응 식재 전략(Landscape Succession Strategy)'을 수립하여 2090년 기후 시나리오에 맞춘 수종 교체 및 도심 열섬 완화 모델 구축
- 수목원 연구 결과를 시민용 '기후 적응형 정원 가이드'로 가공·보급하여 도시 기후위기 대응의 리빙랩 역할 수행

□ 시민을 단순 관람객에서 공동 창작자(Co-creator)로 전환한 ‘영국 에든버러 왕립식물원’

-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밀착형 프로그램과 복지 연계 서비스를 주력으로 추진한 선진 모델
- 시민이 직접 재배·수확에 동참하는 '먹거리 정원(Edible Gardening)'과 보건소 연계 '식물 치유(Wellbeing) 프로그램'을 정례화
- 시민 자원봉사자와 시민 과학자가 수목원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단단한 지역사회 팬덤 및 거버넌스 구축

□ 도심 신도시 주거지-녹지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인 ‘싱가포르 주룡 레이크 가든’

- 관광지형 수목원과 달리 서부 주거단지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 생태계를 연결하는 시립 수목원
- 정부(NParks), 학교, 지역 주민이 함께 모니터링하는 시민과학체계 및 수생식물 생태축을 완성
- 수목원의 역할이 내부 경계에 머물지 않고, 주변 주거지·학교·도심 소규모 정원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의 허브로 확장

□ 시민 생활 밀착형 식물 복지 및 교육 플랫폼인 ‘캐나다 몬트리올 식물원’

- 몬트리올시에서 직접 운영하며, 시민들의 일상적 정원 문화 형성 및 식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립 수목원
- 시민들이 키우는 식물의 병충해나 관리법을 온·오프라인으로 무료 진단해 주는 식물 클리닉(Horticultural Clinic)을 상시 운영
- 일상 속 정원 관리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이 특별한 날 찾는 장소가 아닌 일상적 생활 플랫폼으로 체감하도록 운영

<호주 멜버른 로열 보타닉 가든>



<영국 에든버러 왕립식물원>



<싱가포르 주룡 레이크 가든>



<캐나다 몬트리올 식물원>



출처: (첫줄 왼쪽) <https://www.rbv.vic.gov.au/melbourne-gardens/>
 (첫줄 오른쪽) <https://www.rbge.org.uk/visit/royal-botanic-garden-edinburgh/>
 (아랫줄 왼쪽) <https://juronglakegardens.nparks.gov.sg/grasslands/>
 (아랫줄 오른쪽) <https://espacepouurlavie.ca/jardin-botanique>

< 해외 선진사례 종합 >

주요 선진사례	핵심기능	정책적 시사점
멜버른 로열 보타닉 가든 (호주)	기후변화 적응 식재 모델	단순 보존을 넘어 기후위기 적응 실증 및 정원문화 확산 거점화
에든버러 왕립식물원 (영국)	시민참여형 먹거리 및 치유정원	시민 수혜자에서 공동 창작자(Co-creator)로의 역할 전환
주룽 레이크 가든 (싱가포르)	주거지-녹지 네트워크 통합 시민과학 및 리빙랩 운영	수목원 경계를 넘어 도시 녹지축의 허브 구축
몬트리올 식물원 (캐나다)	시민 맞춤형 식물 클리닉	시민 일상 속 정원 문제 해결사로서의 공공 서비스 제공

4. 수원수목원의 운영 개선방안

□ [역할 확대] 식물 수집·전시에서 도심 기후 적응의 리빙랩 거점으로 확대

- 도심 기후 적응형 테스트베드 정원 조성: 수목원 내 일부 구역을 기후변화(가뭄·폭우·열섬)에 강한 식재 조합 및 투수성 포장·빗물 재활용(Sponge Garden) 기술 실증 공간으로 운영
- 시민 보급형 기후적응 정원 가이드라인 발간: 수목원에서 검증된 기후 적응형 식물 종 목록 및 관리 기법을 매뉴얼화하여 관내 아파트, 공공기관, 시민 정원에 보급
- 기후변화 연계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: 개화·단풍 시기 변화 등 생태 데이터 수집과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모니터링하는 참여형 기후 교육 구현

□ [거버넌스 전환] 관람객(Visitor)에서 공동 창작자(Co-creator)로 역할 전환

- 오픈 가드닝 데이(Open Gardening Day) 정례화: 유료회원 및 수목원 활동가를 계절별 주제원 연출, 특별 전시 식재 현장에 직접 초청하여 식물 식재 및 정원 가꾸기에 함께 동참
- 역량 단계별 시민가드너·도슨트 인증제 도입: 단순 자원봉사를 넘어 [기초 교육 → 전문 가드너/도슨트 인증 → 특정 구역 직접 관리 권한 부여] 방식의 정규 커리큘럼 운영
- 시민과학자 생태 모니터링단 구축: 수목원 내 식물 생육 및 조류·곤충 모니터링에 시민이 상시 참여하고, 수집된 데이터를 수목원 관리에 실제 반영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

□ [공간 확장] 울타리 안 수목원에서 도시 녹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확장

- 수목원-손바닥정원 간 식물소재 지원 بانک 운영: 수목원 양묘장에서 증식한 자생식물 및 우수 수종 모종을 도심 내 손바닥정원, 마을정원, 학교정원에 주기적으로 분양·지원
- 찾아가는 정원관리 컨설팅 지원단 운영: 수목원 전문 인력(정원사, 숲해설가)이 도심 내 손바닥정원 등 소규모 정원을 직접 방문하여 유지관리 및 생육 상태에 대한 기술 지도 제공

- 도시 녹지 네트워크 통합 컨트롤 타워 수행: 수목원의 관리 노하우와 식물 자원을 도심 곳곳의 소규모 녹지로 환원하여 도시 전체의 생태 연결성 강화

□ [서비스 체감] 특별한 날 찾는 관광지에서 일상적 정원복지 플랫폼으로 체감 확대

- 도심형 정원상담실(Green Clinic) 상시 운영: 시민들의 반려식물 병충해 진단, 분갈이 교육, 정원 관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제공
- 보건·복지 기관 연계 정원 치유 처방(Social Prescribing): 관내 보건소·복지관과 협업하여 1인 가구, 고립 청년, 어르신 등 소외계층 대상 회기별 원예치료 및 돌봄 프로그램 상시화
- 공동체·텃밭정원 분양 및 사회적 나눔 연계: 소외계층과 시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루는 정원을 분양하고, 수확한 식물·농산물을 지역 복지시설에 나눔으로써 사회적 돌봄 거점화



SRI 수원시정연구원
SUWON RESEARCH INSTITUTE

Brief

※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| 발행인 김성진 | 편집위원장 정재진 |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